

THE THEATRE MAGAZINE

scene PLAYBILL

FORGET
M
N
O

2014
JUNE



PORTRAIT

연극 <쌔겔즈> 배우 전미도

PEOPLE

연극 <미스 프랑스> 배우 김성령
뮤지컬 <싱잉인더레인> EXO 백현
창극 <변강쇠 점 찍고 용녀> 연출가 고선웅
애니메이션 <꼬마버스 타요> 콘텐츠개발PD 공병필
희곡 전문 번역가 성수정



(왼쪽부터) Roni Horn, Untitled(Weather) 2011
Roni Horn, Untitled, 유리 등 2010-2012

자연 속에 내재하는 끊임없는 흐름 <로니 혼展>

미국 출신의 세계적인 현대미술 작가 로니 혼의 신작들을 소개하는 개인전이 국제갤러리에서 개최된다. 2007년과 2010년 이후 세 번째를 맞는 이번 개인전은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진 및 조각 연작들로 구성되었다. 로니 혼은 날씨를 비롯하여 변화하는 자연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인간의 시각적 경험과 지각능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탐구하였는데, 여기서 그가 주목한 것은 변형되기 쉬운 주체들, 공간성에 대한 고유한 인식을 바탕으로 시간과 기억 그리고 지각 등을 탐색하는 그녀의 작품들은 조용하면서도 강력하게 시선을 사로잡으며 관람객들을 명상 속으로 이끈다. 이번 전시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유리 주조 조각들은 육중함과 압도적인 힘으로 전시장 공간 전체를 지배한다. 유리 조각은 그것이 포획하는 빛을 통해 거대한 물 덩어리, 더 나아가 대지와 바다를 연상시킨다. 그의 트레이드마크로 손꼽히는 이 유리 조각은 아이슬란드의 대기와 빙하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그녀의 예술세계를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5.20-6.22 | 국제갤러리 | 02.3210.9868